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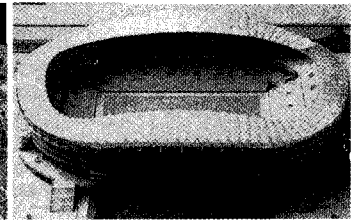


월드컵까지 앞으로 2년, 일본의 10개 스타디움 현황

개막까지 이제 2년 정도 남은 월드컵 축구대회. 일본과 한국에서 공동개최 될 이번 대회에는 일본에서 10개의 스타디움이 대회장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준공한 미야기 스타디움 등 지금까지 3개의 스타디움이 완성되었다. 준결승 시합이 열릴 것으로 확정된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 등 현재 시공 중인 7개의 스타디움도



카시마사카 스타디움



J리그의 개막과 동시에 93년 봄에 오픈한 축구 전용 스타디움을 월드컵용으로 개수. 객석 스탠드를 2층으로 증설하고 새롭게 지붕을 올렸다. 지붕은 전체가 물결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월드컵 개최 스타디움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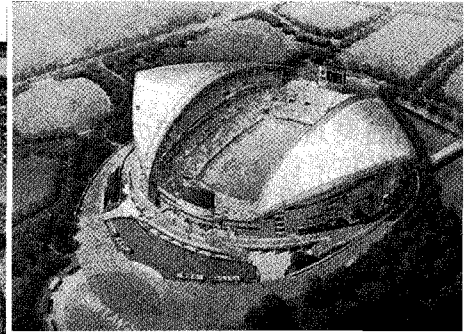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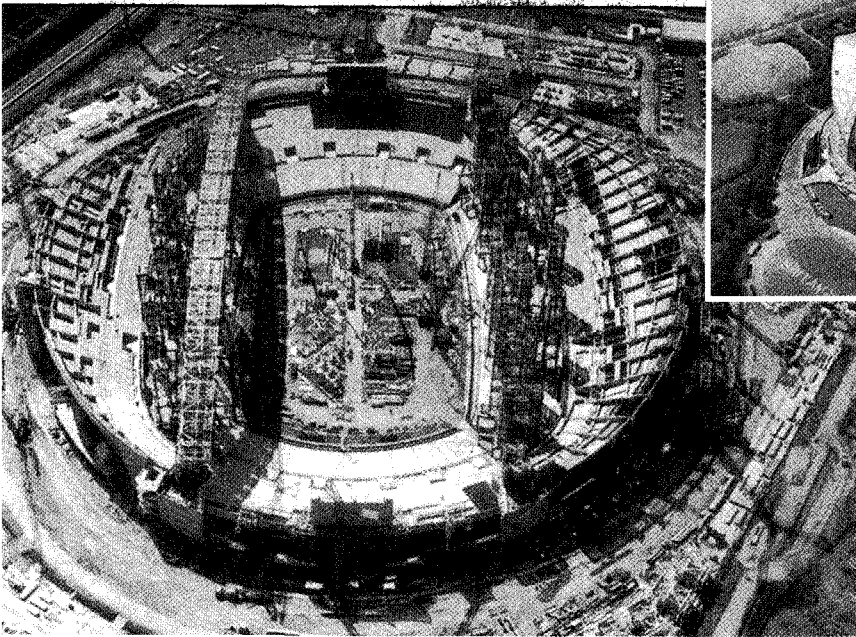
삿포로돔	삿포로시	4만 2,300	1998년6월~2001년5월	약 334억엔
미야기스타디움	미야기군	4만 9,133	1996년11월~2000년5월	약 250억엔
카시마사카스타디움	카시마시	4만 1,800	1998년10월~2001년5월	약 193억엔
사이타마스타디움2002	우라와시	6만 3,700	1998년3월~2001년7월	약 356억엔
요코하마국제종합경기장	요코하마시	7만 336	1994년1월~1997년10월	약 633억엔
니이가타현종합스타디움(가칭)	니이가타시	4만 2,700	1997년10월~2001년2월	약 300억엔
시즈오카스타디움	후쿠로이시	5만 600	1998년9월~2001년3월	약 300억엔
나가이육상경기장	오사카시	4만 5,409	1992년9월~1996년6월	약 400억엔
고사키스타디움	고베시	4만 2,000	1999년10월~2001년10월	약 230억엔
오이타현메인스타디움	오이타시	4만 3,000	1998년4월~2001년3월	약 251억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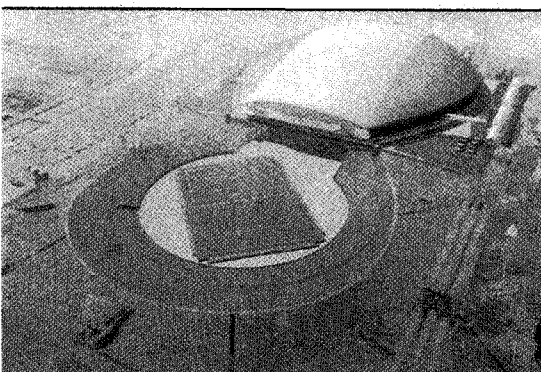
월드컵 스타디움은 수용인원 4만명 이상(준결승, 결승전은 6만명 이상) 관객석의 3분의 2 이상이 지붕으로 덮여져야 하고 필드는 천연 잔디를 사용해야 한다. 조명은 1,500럭스 이상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때문에 9개의 스타디움

은 월드컵을 위해 신축 내지는 건축변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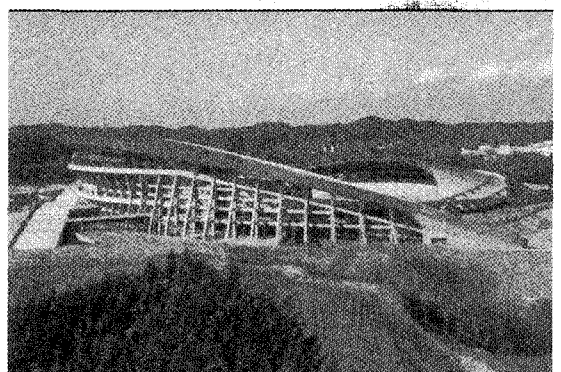
유일하게 개수만으로 해결된 곳이 시바키현의 카시마사카 스타디움이다. 기존의 스타디움(수용인원 1만 5천명)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객석 스탠드를 2층으로 증설(수용인원 4만 1,800명)하여 새롭게 지붕을 다시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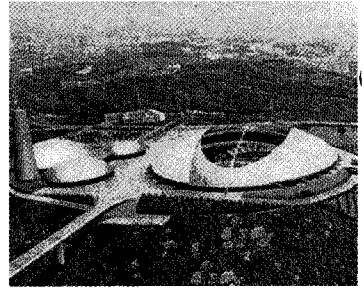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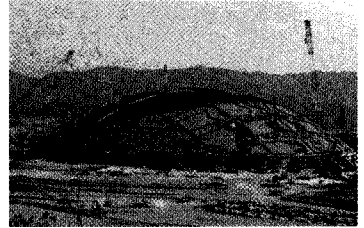
백로의 암수를 이미지화 한 2개의 큰 지붕이 관객석을 덮는다. 준결승전 장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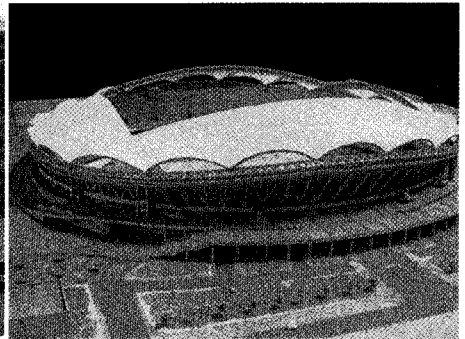
양들의 언덕에 목가적인 풍경속에서 건설 중이다. 필드가 슬라이드식으로 만들어져 옥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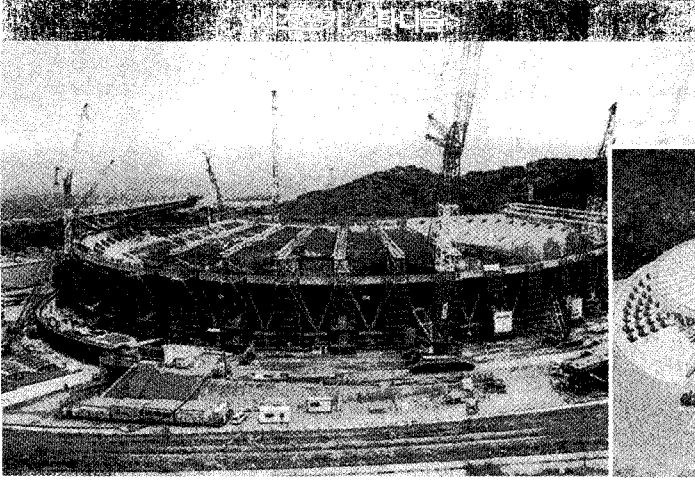
미야기군에 완성된 모습이다. 공개 설계 COMPETITION 당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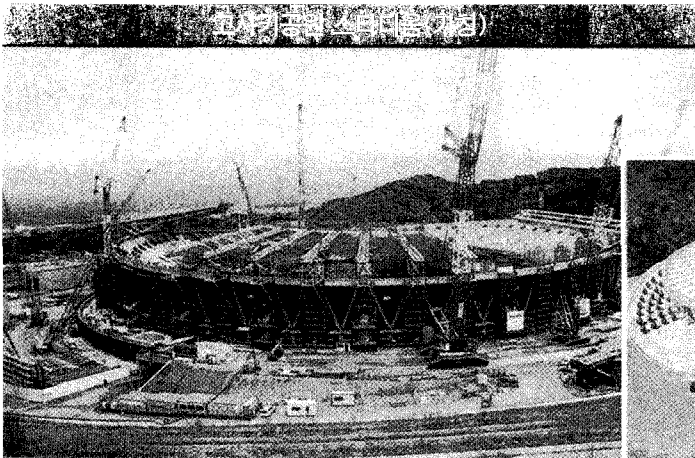
유일한 개폐식 돔.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열리는 가동성(可動性) 지붕은 위에서 보면 사람의 눈동자처럼 보인다. 설계는 쿠로가와씨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가동성 지붕에는 다케나카 공무점이 새로 개발한 투광성(透光性)이 높은 막재(膜材)를 사용하였고 고정지붕은 티탄을 깔았다.



백조의 도래지 이기도 한 토리아노가타의 남쪽 언덕에 백조를 형상화한 더블크로스 아치의 지붕 공사가 진행중이다. 설계는 일건설계가 담당했다.



후쿠로이시와 카케가와시의 접경에 오가사야마 종합운동공원 안에 건설중이다. 설계는 사토우 종합설계가 담당했다.



준공예정인 2001년 10월로 더욱 늦춰졌다. 월드컵 후에 두번째 공사를 행하여, 가동식 지붕을 설치한다. 두번째 공사의 완성은 2003년 3월 예정이다.



요코하마시에 97년 완성되었다. 결승전 장소가 된다.



오사카시 히가시 스미요시구의 구 경기장을 건축 변경했다. 96년에 완성했다.